

**건축 내·외부공간 경계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biguity of the Boundary in the Architectural Interior and Exterior Space

곽기표* / Kwak, Ki-Pyo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at the ambiguity of the boundary between interior space and exterior space in architecture appears universally in history and reveals the various aspects of ambiguous boundary in architecture. The space is formed by the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s and the boundary of two opposite spaces is apt to be ambiguous according to lots of complex factors. Before Modern Architecture the boundary of interior and exterior space had a tendency to be ambiguous by modifying compositional method of material boundary, that is semi interior-exterior space, the reversion of interior and exterior space and space in space. After Modern Architecture the meaning of physical boundary in space is lost along with dissolution of boundary over the society and the boundary of space comes to be dematerialized by the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space perception. The phenomenon of deconstruction in spacial boundary accelerate increasingly according to fluid space, mutually interpenetrated space, visual transparency and adjustment of layers. And contemporary technology is collapsing the meaning itself of space division fundamentally.

키워드 : 내부공간, 외부공간, 경계, 모호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이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은 거주를 위한 영역의 확보에서 비롯되었다. 건축물은 외부환경의 일정 부분이 물리적 외피로 한정됨에 의해 그 안에 내부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내부공간은 바닥, 벽체, 지붕 등 경계 요소를 사이에 두고 외부공간으로 둘러싸인다. 이 경계 요소는 공간을 한정하는 요소이고 건축물의 모습을 형성하며, 건축물 내·외부 환경이 유기적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의 표현이다. 우리는 “부분과 요소들의 배열을 관장하는 질서에 주의를 주게 되며, 형태는 그러한 것의 결과”¹⁾일 뿐이다. 건축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배열의 질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의 양상에 따라 건축역사상 다양한 공간이 구축되어 왔다.

그런데 서구의 건축공간은 기본적으로 쉼터로서 실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공간의 구분이 명확히 한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서구건축의 기본적 구축방식인

조적식 내력벽에 의해 강화되었다.¹⁾ 따라서 기존의 건축역사는 대개 정형적 구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건축적 경계 요소에 의한 내·외부공간의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그러나 건축공간은 명확히 구분될 수 없고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인식적 차원에서 경험된다. 건축물의 내부는 실 내부공간이며 그 바깥은 외부공간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는 이미 근대건축 이후 타파되기 시작하였지만, 건축역사를 관찰하는 우리의 눈은 여전히 닫힌 경계로서 건축물을 바라보고 있다. 공간 경계의 모호성에 주목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 근대 이후 현대건축을 다루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근대건축 이후의 특징으로서만 인식되게 한다.²⁾

본 연구는 경계 요소에 의한 내·외부공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던 건축역사를, 그 역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 해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경계 해체의

1) Giorgio Grassi, *Questione di progettazione* [Giorgio Grassi, *Architettura: lingua morta*], Electa, Milano, 1988, p.23

2) 경계 해체적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근대건축에서 비롯된 공간의 상호관입, 투명성 등의 논의에서 시작되며, 근·현대건축에 한정되긴 하지만 포괄적인 현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는 ‘상대주의 공간’, ‘복합 공간’ 등의 관점을 갖고 있는 임석재의 연구(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가 있다. 또한 해체주의 건축 이후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공간적 양상을 다루는 연구가 렘 콜하스, MVRDV, 토요 이토 등 여러 건축가를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정희원,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동명정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선(先)개념 이해와 건축적 사례 분석이기도 하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공간 경계 모호성의 현상이 근대건축 이후의 현상만이 아니라 건축 역사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아보는 작업이다. 하나의 작용이 있으면 그 반작용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건축 공간 구성이 단일한 사고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에 의해 모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힘에 의해 건축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건축의 내부와 외부는 일차적으로 공간을 한정하는 경계에 의해 설정된다. 본 연구는 먼저 내·외부공간의 개념을 파악한 후, 역사적 사례를 통해 경계의 형성과 그 구분의 모호함을 살펴본다. 특히 경계 요소의 변화를 중심으로 관련문헌 및 도면, 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건축 내·외부공간의 경계 해체 현상을 파악한다. 통사적인 사례 분석은 내·외부공간 경계의 모호성이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공간과 시간 속에서 건축은 하나이고 항상 같은 것이며, 현재 살아가고 건설하는 것과 과거에 그렸던 것의 사이에 어떠한 역사적 차이가 없다는 의미”³⁾이기도 하다. 내·외부공간 구성은 경계면의 건축적 실체인 형태, 공간을 건축의 목적이 되게 하는 기능, 조형에 큰 영향을 주는 상징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내·외부의 공간 구분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경계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분석에 의해 내·외부공간 경계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의 특징을 추출하여 그 양상에 따라 분류하여 본다.

연구대상 건축물의 지리적 범위는 벽체를 사용한 구축방식이 주를 이루었던 서구건축으로 한정한다. 목조건축이 주를 이루었던 한국 등 동양의 건축에서는 가구식 구조에 따라 경계 요소 자체가 상당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재료로 이루어져 왔기에 본 논의의 흐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내·외부공간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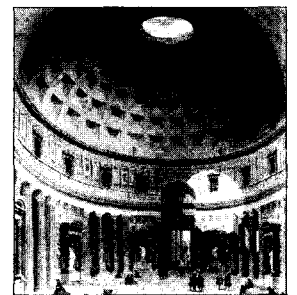
2.1. 건축에서 내·외부공간의 의미

건축의 구축이란 기본적으로 공간 형성에 의한 장소의 창출이라고 하는 관점은 건축을 파악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모든 인공장소의 특징은 위요이며, 장소의 성격과 공간적 특성은 위요의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 둘러싸인 공간은

무엇보다도 경계의 건립을 통해 주위 환경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지역을 의미한다. 모든 위요는 경계에 의해 한정된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에게 “경계는 어떤 것이 멈추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인식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며, 건축 공간의 경계는 벽, 바다, 천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⁴⁾ 건축의 역사를 공간 개념의 역사로 파악하고 있는 브루노 제비(Bruno Zevi)는 모든 건축 볼륨과 벽의 구조물은 경계를 설정하고 공간의 연속성에 멈춤을 가져오기 때문에 건축물은 두 종류의 공간을 창조하는 기능을 하며, 내부 공간은 건물 자체에 의해 완전히 한정되는 것이고 외부 또는 도시 공간은 그 건물과 주변의 건물에 의해 한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건축을 판단한다는 것, 건축에 대한 미적 판결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부공간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한다.⁵⁾ 또한 기디온(Sigfried Giedion) 역시 건축 역사를 바라보는 포괄적인 관점의 기초로서 ‘외부’와 ‘내부’ 사이의 구분을 사용하고 있다.⁶⁾ 여러 건축적 논의에서 공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공간의 내·외부 형성이라는 개념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내·외부공간 설정과 경계의 모호성

건축은 거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며, 앞서 인용한 브루노 제비의 언급처럼 ‘내부공간은 건물 자체에 의해 완전히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되는 장소’라는 말은 외기(外氣)와 물리적으로 차단된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기와의 연결 관계에 따른 내·외부공간의 정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명확히 구분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공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되기는 힘들다. 단적인 사례로서 내부공간의 완성도에 있어서 ‘공간 형태’라는 말을 가져올 정도로 유명한 판테온(Pantheon)<그림 1>은 내부 직경 43.3미터의 돔으로 덮여 있다. 최상단에 9미터 직경의 거대한 원형 개구부(oculus)가 뚫려 있어 정문을 제외하면 내부의 유일한 광원(光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외기에 열려 있다. 비가 올 때면 빗물이 떨어지기도 하며 빗물은 바닥 중앙으로 모여 지하의 하수관을 통해 배수된다.⁷⁾ 외기와의 연결 관계에



<그림 1> 판테온

3) Ignasi de Sola Morales, L'intervento architettonico : i limiti dell'imitazione (Giorgio Grassi, Architettura : lingua morta], Electa, Milano, 1988, p.8

4) Christian Norberg-Schulz, Genius Loci : Paesaggio Ambiente Architettura, Electa, Milano, 1981, pp.19-58

5) Bruno Zevi, Architecture as Space, 공간으로서의 건축, 강혁 역, 명보 문화사, 1989, pp.27-29

6) Christian Norberg-Schulz, Op.Cit., pp.12-27

7) Flaminio Lucchini, Pantheon, La Nuova Italia Scientifica, Roma, 1996,

서 엄밀하게 내부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내부공간의 정의 자체가 불명료해진다. 예외적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호 모순이 공존하는 이러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많은 건축물에서 관찰된다. 더구나 근대 이후 이분법적인 인식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고 체계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내부와 외부, 공성과 사성, 자연과 인공 등 명확했던 기존관념들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결국 물리적 연결 관계에 따른 절대적인 내·외부 공간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융합되어 대립적인 경계는 불확정적이며 모호해진다. 모호성의 전형적인 모습은 표현 방식의 분류가 명확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에 보다 열려져 있고, 형태적 불확실성, 확실치 않은 이미지, 시지각적 애매함⁸⁾ 등을 수반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중간 공간 영역이 언급되어 왔지만 주로 동선상의 과정적 공간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음 장에서 내·외부공간 경계의 모호성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사례를 살펴본다.

3. 시대적 건축 환경과 내·외부공간의 경계

3.1. 근대건축 이전

서구건축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건축에 바탕을 두고 변천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내·외부공간의 형성과 상호 관계에 대한 논의도 여기서 출발할 수 있다. 그리스에서는 공적 생활이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의 외형에서 드러나는 완결성을 중요시하였다. 대표적 건축물 중 하나인 파르테논 신전<그림 2>에는 신상(神像)이 놓이는 실내공간을 열주가 둘러싸고 있다. 열주는 안과 밖 사이의 개방적 상호교류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축부재이다. 열주는 열림과 닫힘 사이의 중간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리스 신전의 열주는 외부와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기능도 갖는다. 열주가 신전의 네 면을 돌아가면서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주변 자연에 대해서 360도 모든 방향에서 열려 있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 신전의 열주는 때로는 투명한 막처럼 감지되기도 한다. 이것은 지중해의 해양성 기후와 그리스 신전 특유의 건축적 구성이 합쳐져서 빚어낸 현상이다. 열주가 투명한 막처럼 보이는 현상은 옥외에서 집회를 갖는 그리스 종교의 기본성격과 잘 부합된다.⁹⁾ 일상생활의 중심지였던 아고라를 형성하는 열주랑도 신전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기능은 보다 더 확대된다.



<그림 2> 파르테논 신전

p.111

8)Corrado Gavinelli, Architettura contemporanea: dal 1943 agli anni '90, Jaca Book, Milano, 1995, p.106

9)임석재, 서양건축사 1-평과 인간, 북하우스, 2003, pp.125-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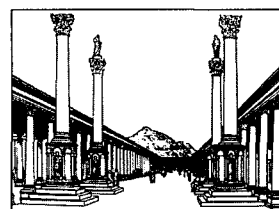
특히 반개방형 열주랑 건물인 스토아(stoa)<그림 3>에서 관찰되는 열주랑은 단순히 건축의 바깥 둘레에 달려서 입면을 정돈해주는 것만이 아니고, 독립된 움직임으로 다른 건축을 엮어 나가며 몇 개의 건물이 무리로 되어 있는 집합체를 형성한다. 동시에 외부와 내부 사이에 경계가 애매한 매개공간을 만들어낸다.¹⁰⁾ 열주랑은 이후 서구건축의 역사에서 내·외부공간을 매개하며 그 영역 사이 경계의 개방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림 3> 프리에네의 스토아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건립된 도시였던 에페수스(Ephesus, 터키)의 가로는 실내와 실외공간의 가역적(可逆的) 변화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리스 극장과 항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건설된 양 끝이 기념물로 막힌 아르카디안 열주랑 가로(Arkadiané)<그림 4>가 복원됨으로써 실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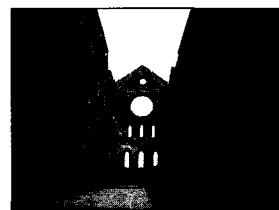
‘건물이고 싶어 했던 가로’가 존재했고 그것이 성공했던 것이 명백해졌다.¹¹⁾ 지붕이 없지만 사방이 둘러싸인 거의 완전한 바실리카적 실내 구성을 하고 있으며 교회건축 실내의 원형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내부와 외부는 동일한 구성 요소와 구성규칙 하에서도 설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로마 제국의 확장에 따라 서기 300년경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스파라토(Spalato, 크로아티아)에 대형 궁전<그림 5>을 건설했다. 이 건축물의 평면은 로마의 병영도시 카스트룸(Castrum)의 구성방식과 유사한 직사각형(215미터 x 176미터)이며, 내부는 직교하는 십자형 가로에 의해 4개의 커다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¹²⁾ 남쪽 바닷가로 향하는 가로 부분은 실제로는 외부공간이지만 건축구성 방식은 실내공간과 유사하다. 이것을 13-14세기 경에 건설되었다가 폐허 상태로 남아 있는 시에나(Siena) 근교 산 갈가노 수도원(Abbazia di San Galgano)<그



<그림 4> 에페수스 열주랑 가로



<그림 5>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그림 6> 산 갈가노 교회

10)호사카 요우이치로우(保坂陽一郎), 경계의 형태, 이진민 역, 한국산업현물연구소, 1999, p.65

11)Sibyl Moholy-Nagy, Matrix of Man, 도시건축의 역사, 최중현·진경돈 역, 세진사, 1990, p.123

12)Mario Morini, Atlante di storia dell'urbanistica, Ulrico Hoepli, Milano, 1983, p.87

림 6>의 로마네스크식 교회 내부와 비교해보면 아주 비슷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지붕이라는 단지 하나의 요소만이 사라졌을 뿐이지만 두 건축물에서 내·외부공간의 개념을 규정하기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내부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외부 가로와 유사한 형식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구성방식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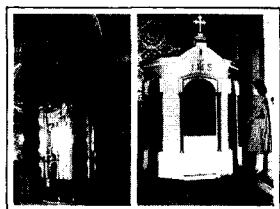
고딕건축의 벽은 돌의 물질성을 소거해감으로써 성립되었다. 고딕 건축은 벽이 제거되고 기둥과 아치로 받쳐지는 것처럼 보이며, 벽면은 빛의 피막으로 변한다. 그 결과 로마네스크 교회의 공간이 육중한 물질이 지배하는 그림자의 공간이었다면, 고딕 교회<그림 7>의 공간은 비물질화된 빛의 공간이 되었다.¹³⁾ 이러한 외피 재료의 투과성은 공간 경계 너머의 공간을 지각하는 가능성을 주고, 반투명면은 내·외부 간의 관계를 증가시킴에 따라 내·외부공간의 경계를 모호한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며, 분리와 연결의 이중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림 7> 생 사뵈르 내부공간

서구건축에서 종교적 건축공간은 인간의 스케일을 초월하는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져 왔다. 신의 영광, 의식의 신비성, 외경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공간 속에 인간의 깊은 부분을 받아들여주는 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로 제단의 천개, 고백소<그림 8> 등으로 나타나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거대한 규모에 끌리는 한편, 동떨어진 스케일의 차이를 어딘가에서 회피하고 싶은 염원에서 비롯된 인간적 스케일을 가진 구조물인 것이다.¹⁴⁾

이러한 구조물은 우리가 실내공간에서 건물의 외형을 관찰하게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즉 소규모 구조물의 바깥은 외부공간이자 대규모 건축물의 내부공간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설치 이유는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물이 아씨시(Assisi)의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Santa Maria degli Angeli, 16세기)<그림 9> 교회 실내에서도 발견된다. 이 소규모의 구조물은 성 프란체스코(San Francesco)가 사용하였던 작은 은거지로서 그 둘레를 대규모의 교회 내부공간으로 감싼 것이다.



<그림 8> 교회의 천개와 고백소



<그림 9>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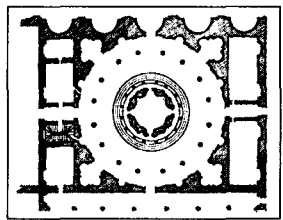
내부공간 속에 또 작은 내부공간을 둔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집 속의 집'이라는 개념은 좀 더 소규모로 축소된 형식으로

기둥과 천장, 휘장이 있는 캐노피 침대<그림 10>라는 가구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침대에 네 개의 기둥이 달리고 그것에 의해 캐노피를 받쳐 작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구조로써 내부공간 속에 만들어진 더 깊은 내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부분 강한 폐쇄성보다는 부드러운 경계를 그들 주변에 형성하고 있다. 몇 개의 열기둥에 의한 경계, 두터운 커튼, 비치는 휘장 등으로 경계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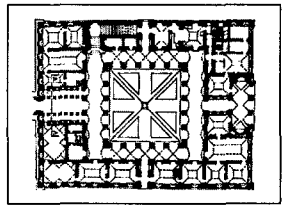


<그림 10> 캐노피 침대

르네상스 이후의 건축에서도 열주랑을 이용한 공간 경계의 연결을 시도한 예는 무수히 많다. 로마의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San Pietro in Montorio) 교회에 있는 템피에토(Tempietto, 1502)<그림 11>의 원형 콜로네이드도 템피에토 고유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브라만테(Donato Bramante)의 설계안을 보면, 템피에토 자체에 속한 이 콜로네이드를 이와 동심원을 이루는 폭이 좁은 중정으로 둘러싼 다음, 이것을 다시 또 다른 원형 콜로네이드로 둘러싸서 내부와 외부로 연결¹⁶⁾하는 다층적인 공간 형성을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종교적 건축물의 경우 팔라초(palazzo)의 중정<그림 12>을 형성하는 열주랑이 대표적 사례이다. 로마의 도무스(domus)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팔라초는 사각형으로 형성된 건물 중앙에 안마당을 두고 주변을 열주랑으로 감싼 다음 이 곳을 중심으로 모든 방들을 배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모든 동선이 집중되어 있고 건물 내의 내부적 외부공간이 건축물의 중심에 위치하며 중간적 영역의 열주랑에 의해 내·외부가 매개된다.



<그림 11> 템피에토



<그림 12> 팔라초 파르네제

3.2. 근대건축

근대 이후 서구사회는 사회적, 사상적, 물리적, 시각적 경계가 점차 해체되어 닫힌 경계에서 열린 경계로 진행되었다. 근대건축은 내부를 해체하고 무한한 외부로 확장하려 하였다. 근대건축의 거장들이 실험한 공간개념은 바로 이와 같은 내부를 끊임없이 외부로 바꾸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 기둥과 벽은 시스템으로 분리되었다. 무한공간은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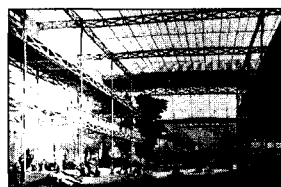
13)대한건축학회, 건축공간론, 기문당, 2003, pp.91-92
14)호사카 요우이치로우(保坂陽一郎), Op. Cit., p.65

15)Ibid., p.125
16)Paul Frankl, Principles of Architectural History, 건축형태의 원리, 김광현 번역, 기문당, 1989, pp.154-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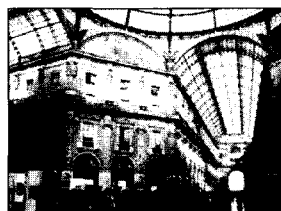
등 격자로 실현되고, 균등한 기둥 사이에는 비내력벽이 도입되어 내부를 불규칙하게 계획하였다. 벽도 물체성이 소거된 단순한 구성요소로 축소되었다. 내부가 외부로 팽창하려 할 때, 그 내부는 볼륨으로 인식되며 체적의 경계는 연속적인 피막이 된다.¹⁷⁾ 제들마이어(Hans Sedlmayr)는 근대건축의 전조가 19세기의 산업 발전에 의한 철과 유리를 사용한 대규모 건축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는 외부와의 마무리가 투명한 유리 막이기 때문에 건물과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가 소실되고, 내부공간이라는 것은 무한한 외부공간에서 구분된,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내부공간은 흔히 들여다보이는 천막이며, 인간이 '바깥 세계'나 우주의 반대 개념으로 '자기 집' 속이라고 주장하던 확고한 한계가 없어지게 되었다¹⁸⁾고 설명한다.

산업화에 의해 등장한 실내 시장, 기차 역사와 더불어 19세기의 많은 전시공간은 철구조에 의한 구성적, 공간적 가능성을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만국박람회를 위해 완성된 런던의 크리스탈 팰리스(Crystal Palace, 1851)<그림 13>

는 사실상 배럴 볼트로 덮인 철과 유리의 바실리카였다.¹⁹⁾ 설계자인 팩스톤(Joseph Paxton)은 대량생산되기 시작한 근대적 재료인 철과 유리로 된 규격화 부재를 사용하여 거대한 공간을 덮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공간은 거의 외부가로 같은 실내공간을 창출하였다. 밀라노의 두오모(Duomo) 광장과 스칼라(La Scala) 극장을 이어주는 갈레리아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Galleria Vittorio Emanuele II, 1867)<그림 14>



<그림 13> 크리스탈 팰리스



<그림 14> 갈레리아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를 헐고 정비한 십자형 가로부분을 철과 유리로 덮어 전통적인 건축물에 익숙하였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²⁰⁾ 십자형 가로의 끝부분은 모두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반(半)내부적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루이스 칸(Louis I. Kahn)의 "거리는 건물이 되기를 원한다"²¹⁾는 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유형의 공간은 상업적 동기에 의해 최근까지도 되풀이되는 유형이다. 유사한 반내부적 외부공간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 대도시에 건립된 대규모의 철

17)대한건축학회, Op. Cit., p.97

18)Hans Sedlmayr, Verluuster der Mitt, 중심의 상실, 박래경 역, 문예출판사, 2002, p.91

19)Ludwig Hilberseimer, Hallenbauten: Edifici ad Aula, Luca Lanini, Andrea Maglio ed., Clean, Napoli, 1998(1931), p.22

20)Giovanna Cavalazzi, Gau Falchi, La storia di Milano, Zanichelli, Bologna, 1989, p.126

21)Alexandra Tyng, Beginnings: Louis I. Kahn's Philosophy of Architecture,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New York, 1984,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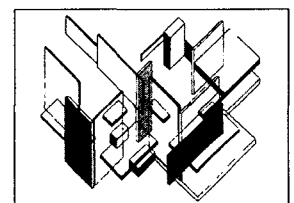
도 플랫폼<그림 15>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 선로가 통과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차가 되돌아가는 종착역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로의 끝부분이 역의 대합실과 바로 이어져 있어서, 기차의 진입부를 제외하고는 거대한 유리 터널로 실내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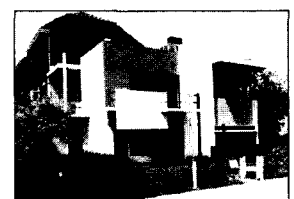
<그림 15> 밀라노 중앙역

이와 같이 근대건축의 가장 중요한 공간 개념은 내부와 외부의 연속을 통해 무한공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개념은 결국 '벽'을 부정하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애매해지게 된다. 서구건축에 전통적이었던 구축적 표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개념은 데 스틸(De Stijl)의 주장에서 보다 확실히 확인된다. "새로운 건축은 벽을 해체하였고, 그러한 방식으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구분을 소멸시켰다. 벽은 더 이상 지지체가 아니며 지지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 결과 고전적인 평면과 완전히 다른 새롭고 개방적인 평면이 발생된다. 여기에서는 외부공간과 내부가 서로 침투하고 있다."²²⁾고 하며, "폐쇄적 요소(벽체)의 해체에 의해서, 우리들은 내부와 외부의 이원성(二元性)을 제거"²³⁾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는 내부의 벽은 접합하지 않고, 직교하는 면은 교차하면서 내·외부공간을 유동시킨다. 테오 반 두즈부르크(Theo Van Doesburg)의 반구축도(Counter-Construction, 1923)<그림 16>

에서 교차하는 면은 벽면인 듯이 보이지만 실은 건축의 '벽'이 아니다. 모든 한정 요소는 벽과 바닥, 천장의 구별이 없는 추상적인 면일 뿐이다.²⁴⁾ 이러한 데 스틸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리트벨트(Gerrit Thomas Rietveld)의 슈뢰더 주택(Schröder House, 1924)<그림 17>에서 입방체는 수직, 수평면들로 분해되어 서로 교차하고, 유리로 덮인 모퉁이 부분의 비물질적 특성은 내·외부공간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림 16> 반구축도



<그림 17> 슈뢰더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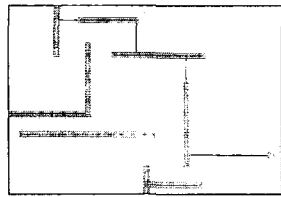
데 스틸의 영향을 받은 미스 반테어 로에(Mies van der Rohe)의 벽돌조 전원주택(1923)<그림 18>은 내력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간 구성방식에서 내·외부공간의 해체 양상을 보여준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벽체는 내부공간의 한정 요소로서 작용하

22)Theo Van Doesburg, Tot een beeldende Architectuur(1924) [Mara De Benedetti, Attilio Pracchi ed., Antologia dell'architettura moderna, Zanichelli, Bologna, 1988, p.34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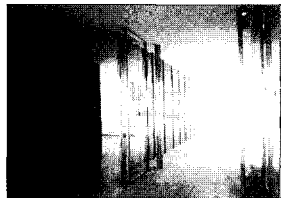
23)Theo Van Doesburg, Cor Van Eesteren, -□+=R4(1924) [Mara De Benedetti, Attilio Pracchi ed., Ibid., p.343에서 재인용]

24)대한건축학회, Op. Cit., pp.98-99

기보다는 내·외부공간의 경계를 흐트리고 상호 관입시킨다. 벽체와 유리가 접합되는 부분에서는 아무런 연결 디테일이 보이지 않으며, 유리는 내부공간을 외부로부터 분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실내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피막으로만 의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공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동적 공간 개념이 실제로 구현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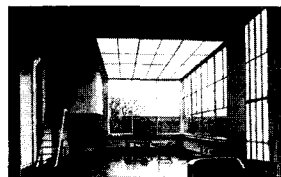
<그림 18> 벽돌조 전원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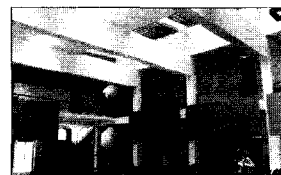
<그림 19>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Barcelona Pavilion, 1929)<그림 19>에서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본타(Juan Pablo Bonta) 등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구조 및 표현방식의 부정직함이 비판되고 있지만, 공간의 흐름과 시각적 투명성에 의해 달성된 건축 내·외부공간 경계의 해체라는 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근대건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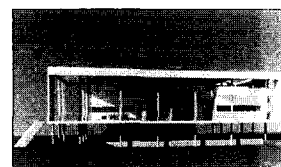
이외에도 르 코르뷔제(Le Corbusier)의 오장팡 주택(Maison Ozenfant, 1922)<그림 20> 2층 모서리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유리 상자에 의한 투명하고 비물질적인 입체와 내·외부공간의 교호성, 르네상스식 팔라조를 근대건축으로 해석해낸 쥘세페 테라니에 의한 카사 델 파쇼(Casa del Fascio, 1932-36)<그림 21>의 실내 중정공간에서 관찰되는 내·외부공간의 역전, 역시 테라니의 가벽 프레임과 유리 벽 구성에 의해 내·외부공간이 관입되어 있는 호반의 빌라(Villa sul lago, 1936)<그림 22> 등 많은 사례들에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오장팡 주택



<그림 21> 카사 델 파쇼



<그림 22> 호반의 빌라

3.3. 현대건축

근대건축의 영향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1940년대 후반에 설계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의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 1949)<그림 23>를 보면 욕실 공간만을 제외하면 내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외벽도 가는 금속 프레임에 유리로만 마감되어 있다. 자연 속에 놓인 이 건물은 유리의 투명성이 끊임없이 내부를 외부화

시키는 시각적 경계 해체 현상에 의해 실내에서 외부를 그대로 느낄 것이며, 인간의 건축물 창조와 내·외부공간의 구분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준다.

한편 기후 요소를 중시하여 외부 영역을 실내공간의 연장으로 보려는 경우도 있다. 리처드 노이트라(Richard Neutra)의 한쉬 하우스(Hansch House, 1955)<그림 24>에서는 옥외 활동을 위한 외부 영역도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 요소가 되었으며 내·외부공간 사이의 이분법적 구별을 뛰어넘는 상호 융통적인 겹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실내에서 넓고 투명한 창을 통해 내다보는 옥외 공간은 별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실내의 연속으로 느껴지고 있다.²⁵⁾ 미스 반 데어 로에나 필립 존슨의 건물보다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관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있어서 풍부한 공간 경험을 경험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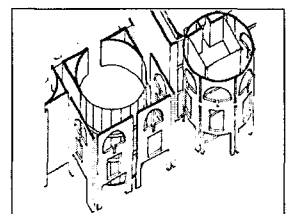


<그림 23> 글라스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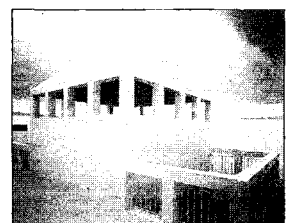


<그림 24> 한쉬 하우스

루이스 칸(Louis I. Kahn)은 건축이란 한 장의 벽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몇 장의 벽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깨닫고, 면을 적층(積層)하여 구성하거나 방 속의 방 또는 벽 속의 방, 이중의 벽을 디자인한다.²⁶⁾ 솔크 생물학연구소(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1959-65)<그림 25> 커뮤니티 센터는 이중 피막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웅거스(Oswald Mathias Ungers)의 독일 건축박물관(Deutsches Architekturmuseum, 1981-84)<그림 26>의 외관은 18세기 저택을 개수한 것이다. 기존 건축의 내부를 들어내고 삽입한 '집 속의 집'이라는 주제가 이 박물관의 공간 개념이다. 관람객은 내부공간에서 건축의 외곽을 보며, 공간 안의 공간을 따라 전시 자료와 공간 자체를 알게 된다.²⁷⁾ 이처럼 공간 속에 공간을 삽입시키는 방식은 내부와 외부가 연속적으로 반복 교차되면서 다층화되어 내·외부 공간 경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그림 25> 솔크 생물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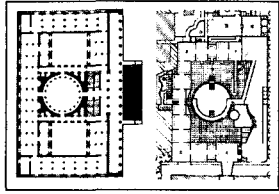
<그림 26> 독일 건축박물관

25)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의 공간, 시공사, 1999, pp.27-28

26) 코야마 히사오(香山壽夫), 건축의장강의, 김광현 역, 국제, 1998, pp.108-109

27) 대한건축학회, Op. Cit.,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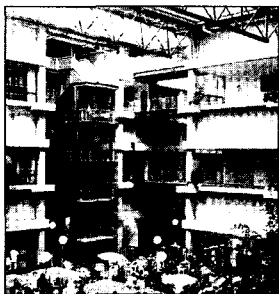
제임스 스티어링(James Stirling)의 슈투트가르트의 노이에 뮤지엄(Neue Staatsgalerie, 1977-1984) <그림 27>은 조형적, 역사적 절충주의를 보여준다. 형태적으로 중심 공간을 원형으로 둘러싸는 형상을 가진 쉰켈(Karl Friedrich



<그림 27> 알테스 뮤지엄과 노이에 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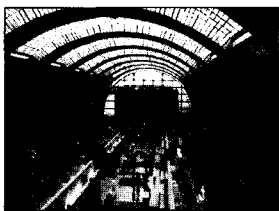
Schinkel)의 알테스 뮤지엄(Altes Museum)의 원형(原型)을 재해석하고 있다.²⁸⁾ 그러나 쉰켈의 뮤지엄은 중앙 홀 부분이 거대한 돔으로 덮인 판테온과 유사한 실내공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스티어링의 건물에서 중앙 부분은 텅 빈 외부공간으로 남겨져 있다. 형태구성 방식은 동일한 유형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내·외부공간은 역전되어 나타나 전통적 평면형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도치된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광대한 공간을 투명도가 높은 재료로 덮여 외부적 내부공간을 만드는 사례는 현대건축에서도 계속 반복된다. 유럽에서의 대형 공공 공간은 오래된 물리적 도시 구조를 보존하면서 실내공간에 광장이나 골목길 같은 도시 외부공간<그림 28>을 이식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림 28> 아카데미 메디칼 센터

대형 아트리움 공간 속에 광장의 기능들이 담겨지면서 실내광장이 형성되고 주위를 둘러싼 각 방향의 실내 전개면들이 마치 외부 광장 주변의 건물 입면들처럼 다양하게 처리되어 있다. 실내 광장에서는 노천 카페가 차려지기도 하며, 바닥을 광장의 포도(鋪道)와 같은 패턴으로 깔고 가로수를 심으며 가로등을 설치하면 외부공간 같은 느낌은 더욱 배가된다.²⁹⁾ 가에 아울렌티(Gae Aulenti)에 의한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1980-86)<그림 29>은 옛 기차역의 광대한 반외부공간을 실내공간으로 개조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한편 상업적 목적만으로 실내 광장이나 실내 가로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토론토(Toronto)의 이튼 센터(Eaton Center, 1973-77)<그림 30>는 일반적인 기둥 위를 복도형 유리 천정으로 덮고 있으며 쇼핑을 위한 기능적 안락함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원



<그림 29> 오르세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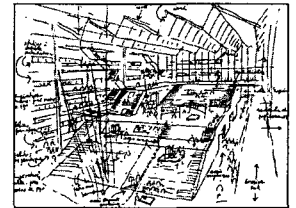
<그림 30> 이튼 센터

28)Corrado Gavinelli, Op. Cit., p.151

29)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p.241

형30)임을 보여준다.

20세기 후반이 되면 해체주의 건축 등의 영향으로 공간의 개념이 크게 변하게 된다. 현대 건축가들의 건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공간의 침투성은 공간의 경계가 해체되고 그 경계가 모호하여 다층화된 투명한 경계를 지니는 것과 관련된다. 여기서 층화(layering), 이중 외피, 투명성, 공간적 경계와 인지적 윤곽, 분리와 연결의 공존 수법 등은 공간의 침투성을 얻기 위한 디자인의 주요 전략들이다.³¹⁾ 콜롬비아(Columbia) 대학의 레너홀(Alfred Lerner Hall, 1994-99)<그림 31>에서 추미(Bern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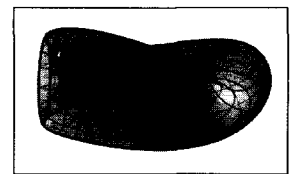
<그림 31> 레너 홀

Tschumi)는 틸 공간과 잉여 공간이 각종 이벤트가 발생하는 주요한 장소로 만들어지는 것을 프로젝트의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그는 규모가 큰 실내 경관을 만들고, 이 공간 안에 전시 홀, 강당 하부의 특별전시실들, 강당, 카페테리아, 설치 공간 등을 배치하였다. 대형 공간 아래에 다양한 공간들을 삼입함으로써 외부에 존재하는 내부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공간 등과 같이 색다른 공간적 질서를 전개하여 다양한 층위로 전개되는 공간적 질서를 경험하게 해준다.³²⁾ 장 누벨(Jean Nouvel)의 카르티에 재단(Cartier Foundation, 1994)<그림 32>은 가느다란 프레임과 투명한 막처럼 펼쳐진 유리 가벽형식의 구성에 의해 구조와 자연의 유비, 투명성, 깊이감, 가상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내·외부공간 경계 요소의 본래적인 목적을 해체하고 있다.



<그림 32> 카르티에 재단 입구

또한 근대공간을 지배해오던 분절적 명료성이 사라지고, 정의하기 어려운 공간 영역들이 등장하고 있다. 건축 공간과 형태가 하나로 지각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바닥, 벽체, 천장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의 연속된 면으로 만들어져 요소간의 경계가 없는 일체감의 공간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치 클라인의 병(Klein Bottle)<그림 33>처럼 공간의 분절이나 경계는 사라지며 공간과 표면이 겹치면서 내·외부가 연결되는 변형이 일어난다. 여기서 대지와 조경, 건물은 하나가 되어 서로 겹치고 침투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림 33> 클라인의 병

또한 근대공간을 지배해오던 분절적 명료성이 사라지고, 정의하기 어려운 공간 영역들이 등장하고 있다. 건축 공간과 형태가 하나로 지각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바닥, 벽체, 천장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의 연속된 면으로 만들어져 요소간의 경계가 없는 일체감의 공간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치 클라인의 병(Klein Bottle)<그림 33>처럼 공간의 분절이나 경계는 사라지며 공간과 표면이 겹치면서 내·외부가 연결되는 변형이 일어난다. 여기서 대지와 조경, 건물은 하나가 되어 서로 겹치고 침투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림 34> 빌라 VPRO

30)Corrado Gavinelli, Op. Cit., p.178

31)김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p.149

32)Ibid., pp.8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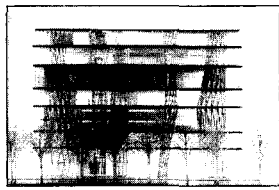
이에 따라 공간을 독립적인 실체로 지각하던 인식의 기초가 무너지고, 공간/매스, 내부/외부, 부지/건물, 구조/장식 등 건축의 역사에서 견고하게 지켜져 오던 경계가 해소되고 있다. MVRDV는 빌라 VPRO<그림 34>에서 외피와 내부 바닥을 연속된 면으로 구성하고 있다. 벽체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구분하는 역할 대신 내·외부 연속면의 부분이 된다.

또한 공간은 매체적 성격을 띠면서 점차 스크린상의 영상<그림 35>과 같이 가상적인 것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간의 지각과 경험이 표면 효과와 결부되고 공간의 명료성 대신 모호성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축물 자체가 비물질화할 뿐만 아니라 공간의 존재감마저 희박해지며, 과거에 쉽게 지각되던 공간의 깊이나 형상은 사라지고 대신 층화되고 흩어져서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애매한 공간들이 등장하고 있다.³³⁾ ‘탈경계의 건축(Blurring architecture)’



<그림 35> 바람의 알

으로 자신의 건축을 표현하고 있는 토요 이토(Toyo Ito)는 차이의 소멸을 표방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구조적 유연성, 표면의 비물질성,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현대기술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한다. 센다이



<그림 36> 센다이 미디어테크

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 1995-2001)<그림 36>의 드로잉을 보면 투명한 상자의 옅은 막을 사이에 두고, 숲을 이루고 있는 내부 구조체와 외부의 가로수가 겹쳐져 나타난다. 이쪽과 저쪽, 자연과 테크놀로지, 투명과 불투명, 내부와 외부 등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모호해진다. 마치 절대적이고 양자택일적인 개념이 사라진 현대의 다윈론적 인식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듯하다.

4. 내·외부공간 경계 모호성의 양상

조적식 내력벽에 의한 폐쇄성이 강한 구축방식이 주를 이루어 온 서구의 건축역사에도 내·외부공간의 설정이 복합적이며 명확히 한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봐왔다. 경계의 설정으로써 외부환경으로부터 단절된 내부공간을 확보하려는 구축적 목적은, 그에 수반되는 내·외부의 연결성 확장이라는 반작용적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중간적인 영역을 설정하거나 경계를 흐리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이러한 공간 경계의 모호성을 주로 내·외부의 공간 구분을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경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반(半) 내·외부공간 : 건축에서 반 내·외부공간의 일반적인 현상은 공간의 일부가 외기에 열려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건축 구성방식으로서 유형화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는 열주랑이 있다. 주로 매개적 중간 공간 영역을 설정하여 내부와 외부공간의 상호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형성되며, 전이적인 공간층을 만들어 영역 사이 경계의 개방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② 내·외부공간의 역전 : 공간 구성의 역전 현상으로서, 실내와 실외공간의 가역적(可逆的) 변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내부와 외부는 동일한 구성방식에서도 한 두 요소의 위치 변경이나 탈락에 의해 도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실내 가로, 실내 광장 등 대형 실내 공공 공간에서 나타나며, 내·외부공간 구성 방식을 규정하기가 애매해진다.

③ 공간 속의 공간 : 건축물의 내부공간 속에 또 작은 내부공간 두는 개념은 거대한 규모의 대공간 속에 보다 인간적인 스케일의 공간을 두려는 의도에서 나타난다. 소규모 건물의 바깥은 외부공간이자 대규모 건물의 내부공간임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고, 실내공간에서 건물의 외형을 관찰하게 되는 경험을 제공해준다. 내·외부는 연속적으로 교체되고 다층화되어 공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④ 공간의 연속성과 침투성 : 과학적 인식이 크게 전환되고 유클리드적 기하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 내·외부공간 개념의 변함에 따라 공간 구성체계가 변화되고 구성문법이 바뀐다. 공간과 형태가 해체되어 내부는 외부로 확장되고, 유동적 공간이나 상호관입 공간이 형성된다. 공간의 침투성은 다층화되고 투명한 경계를 형성하며, 바닥, 벽체, 천장의 구분이 사라지고 내·외부공간이 하나의 연속된 면에 의해 형성되는 요소간의 경계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⑤ 표층 투명도 조절 : 주로 재료의 투과성을 이용하여 건물 외피의 시각적인 투명도를 조절하여 내·외부공간의 경계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간 경계 맞은편을 지각할 수 있게 해주고, 육중한 벽체의 물질감을 제거하며 내부공간을 끊임없이 외부화시킨다. 내·외부공간의 관계가 증가됨에 따라 외부가 실내공간의 연속으로 인식되어 내·외부공간의 경계를 모호한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 최근에는 건축 표피의 의미가 공간의 경계 영역에서 인터페이스(interface) 영역으로 전환되어 외부 환경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 정보를 내·외부 경계면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내·외부공간의 동시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33)대한건축학회, Op. Cit., pp.133-135

<표 1> 내·외부공간 경계 모호성의 양상

유형	해체 방식	표현 유형	사 례
반 내·외부 공간	매개적 중간 공간 영역, 전이적인 공 간층	내부공간의 일부 개방, 열주랑	그리스 신전 열주랑, 스토아, 템피에토, 팔 라초 중정, 갈레리아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밀라노 철도역사
내·외부 공간의 역전	공간 구성요소의 결합 방식 변경, 도치된 내·외부	실내 가로, 실내 광장, 실내 중정	에페수스 가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산 갈가노 수도원, 크리스탈 펠리스, 카사 델 파쇼
공간 속의 공간	내부공간 속에 작 은 내부공간 설치, 내·외부가 연속 적으로 교체되고 다층화	실내에 설치된 구축물, 기구, 이 중 피막	슈투트가르트 뮤지엄, 아카데미 메디칼 센 터, 오르세 미술관, 이튼 커머셜 센터, 레 너 홀, 교회 천개와 고백소,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캐노피 침대, 슬크 생물학연 구소, 독일 건축박물관
공간의 연속성과 침투성	내부와 외부의 연 속, 공간의 관입과 침투	유동적 공간, 상 호관입공간, 다층 화 공간, 연속된 바닥면	슈레더 주택, 벽돌조 전원주택, 바르셀로 나 파빌리언, Casa del Fascio, 오장광 주 택, 호반의 빌라, Villa VPRO
표층 투명도 조절	투과성 재료 사용, 시각적 경계 해소, 입면구성방식 변 화	시각적 투명성, 확장된 공간, 외 피의 인터페이스 화	고딕 교회, 글라스 하우스, 한쉬 하우스, 카르티에 제단, 바람의 알, 샌다이 미디어 테크

5. 결론

본 연구는 건축의 내·외부공간이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아
니며 서구건축 역사 전반에 걸쳐 공간 경계의 모호성이 보편적
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여, 시대에 따른 경계
형성과 그 구분의 모호성을 경계 해체적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경계 구축에 의한 내·외부공간 설정이라는 개념은 이
분법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에
의해 그 경계의 구분은 모호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 여기
에는 경계의 설정으로써 외부로부터 단절된 내부공간을 확보하
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에 내·외부의 연결성을 확장하려는 의
도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둘째, 근대 이전에는 주로 물질적인 경계 요소의 구성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내·외부공간의 경계를 조절하였고, 매개적 중간
공간 영역을 형성하여 반 내·외부공간을 형성하거나 구성요소
의 결합 방식을 변경·탈락시킴에 의해 내·외부공간을 도치시
켰으며, 공간 속에 공간을 설치하여 공간의 연속적인 교체를
경험하게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셋째, 근대 이후에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기
술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공간 구성체계가 변화되
고 물리적인 공간 경계에서 비물리적인 공간 경계로 전환된다.
유동적이거나 상호 관입된 공간, 시각적 투명성 등에 의해 경
계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현대의 테크놀로지는 공간 구분
의 의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

결국 건축 내·외부공간 경계의 모호성은 전 시대를 통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현대로 올수록 기술적 제약으로부터 자
유로워짐에 따라 보다 열린 공간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사회 전반의 경계 해체 현상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의 경계
가 그 의미를 잃어감에 따라 비물리적인 공간 경계 형성으로
공간 개념 자체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 경계와 차이, 구분이 불
분명해지고 있다. 즉 건축의 역사는 구축의 역사임과 동시에
경계 해체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2. 대한건축학회, 건축공간론, 기문당, 2003
3.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의 공간, 시공사, 1999
4. 임석재, 서양건축사 1-땅과 인간, 북하우스, 2003
5. Cavalazzi, Giovanna, Falchi, Gau, La storia di Milano, Zanichelli, Bologna, 1989
6. De Benedetti, Mara, Pracchi, Attilio ed., Antologia dell'architettura moderna, Zanichelli, Bologna, 1988
7. Gavinelli, Corrado, Architettura contemporanea: dal 1943 agli anni '90, Jaca Book, Milano, 1995
8. Grassi, Giorgio, Architettura : lingua morta, Electa, Milano, 1988
9. Hilberseimer, Ludwig, Hallenbauten: Edifici ad Aula, Luca Lanini, Andrea Maglio ed., Clean, Napoli, 1998(1931)
10. Lucchini, Flaminio, Pantheon, La Nuova Italia Scientifica, Roma, 1996
11. Morini, Mario, Atlante di storia dell'urbanistica, Ulrico Hoepli, Milano, 1983
12. Norberg-Schulz, Christian, Genius Loci : Paesaggio Ambiente Architettura, Electa, Milano, 1981
13. Tyng, Alexandra, Beginnings: Louis I. Kahn's Philosophy of Architecture,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New York, 1984
14. Frankl, Paul, Principles of Architectural History, 건축형태의 원리, 김광현 역, 기문당, 1989
15. Moholy-Nagy, Sibyl, Matrix of Man, 도시건축의 역사, 최종현·진경돈 역, 세진사, 1990
16. Sedlmayr, Hans, Verlust der Mitt, 중심의 상실, 박래경 역, 문예출판사, 2002
17.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공간으로서의 건축, 강혁 역, 명보문화사, 1989
18. 코야마 히사오(香山壽大), 건축의장강의, 김광현 역, 국제, 1998
19. 호사카 요우이치로우(保坂陽一郎), 경계의 형태, 이진민 역, 한국산업훈련연구소, 1999

<접수 : 2005. 2. 25>